

선진국에서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공중건강(public health)의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아주 흔한 질환이면서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쉽게 발견되고 또 쉽게 치료 가능하나 치료하지 않고 두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 최근 식생활이나 생활양식이 서구화되고 국력이 선진국 대열에 속하기 때문에 사정은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선진국의 경우 과거 약 20여년간 꾸준한 교육과 계몽을 통해 고혈압을 치료받지 않았거나 혹은 진단되지 않은 환자가 약 20%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이유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혈압 상승에 대한 병리생리학적 기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고혈압의 약 90% 이상에서 명쾌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고혈압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 임상증상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은 혈압 상승으로 초래되는 특별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신체검사시 우연히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 환자가 의사를 찾아온 경우 대개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데 혈압만 높은 경우, 고혈압으로 인해 혈관질환이 합병된 경우 및 다른 질환이 공존하고 있어서 이차적으로 고혈압이 초래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중증 고혈압시 두통이 특징적인 임상증상이며, 후두부에 국한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대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이 나타나서 수시간 후에 소멸된다. 이외에 흔한 증상으로는 훈현증(dizziness), 심



최규보

&lt;가톨릭의대 교수&gt;

계항진(palpitation), 피로감(fatigability) 및 임포텐스 등이다. 혈관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의 증상이나 징후로는 비출혈(epistaxis), 혈뇨(hematuria), 망막 손상으로 인한 시력혼탁(blurring of vision), 일시적인 뇌의 허혈로 인한 무력감과 훈현증, 협심증 및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다. 다른 질환이 있어서 이차성 고혈압이 발생된 경우의 동반되는 임상증상이나 징후로는 원발성 알도스테로니즘(primary aldosteronism)의 경우 다뇨(polyuria), 다름다갈증(polydipsia) 및 전신적 무력감이고 쿠싱증후군에서는 체중증가와 정신적 불안정감 등이 자주 나타나고 갈색세포증(pheochromocytoma)이 고혈압의 원인인 경우 발작적인 두통, 심계항진, 발한(diaphoresis) 및 체위변화에 의한 훈현증 등이 자주 발생한다.

#### 고혈압의 진단

##### 1. 병력(history)

표 1. 고혈압 진단을 위한 기본 및 정밀검사

1. 기본검사
a. 소변검사(단백뇨, 혈뇨, 요당)
b. 헤마토크리트(hematocrit)
c. 혈청 포타시움(serum K)
d. 혈청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serum creatinine and BUN)
e. 심전도
f. 혈당치,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g. 혈청 칼슘, 포스페이트, 요산(serum Ca, P, uric acid)
h. 흉부 X-선 검사
2. 정밀검사
a. 신성 고혈압 : digital subtraction angiogram or rapid sequence IVP
b. 갈색세포증 : 24-h urine for creatinine, metanephrine, catecholamine
c. 쿠싱 증후군 : overnight dexamethasone suppression test or 24-h urine cortisol

가족력은 본태성 고혈압(esential hypertension)의 진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차성 고혈압은 35세 이전과 55세 이후에 주로 발현한다. 혈압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나 부신 호르몬의 사용 등에 대한 문진은 필수적이다. 빈발한 요로감염은 만성 신우염을 일단 생각해야 하고, 야간다뇨증이나 다음다갈증은 신장질환 혹은 내분비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체주의 증감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혈관질환의 합병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협심증 증상, 호흡곤란, 뇌혈관이나 말초혈관의 기능부전에 의한 증상들을 문진해야 한다. 이외에 흡연 유무, 당뇨, 지질대사 장애등에 대한 병력의 문진도 필요하다.

##### 2.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

이학적 검사는 환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얼굴이 둥근지, 비만인지 혹은 근육이 하체에 비해 상체에서 더욱 발달했는지 등을 살펴보아 이차성 고혈압의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본다. 다음 단계는 누운 자세와 선 자세에서 양팔의 혈압과 맥박을 비교 해보며 이때 이완기 혈압이 누워 있다가 서는 경우에 증가하면 본태성 고혈압을 시사하며, 감소하면 이차성 고혈압을 시사한다. 자세한 안저검사는 거의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고혈압의 지속기간과 예후를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경동맥의 축지와 청진도 빠뜨려서는 안되는데 경동맥의 협착이나 폐쇄는 고혈압성 혈관질환의 존재를 암시하며, 특히 신동맥의 혈착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심장과 폐 검사에서는 좌심실이 비대하여 있는지, 제3음이나 4음이 들리는지, 심장음이 청진되는지 그리고 폐모음이 청진되는지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복부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동맥 위치에서 잡음(bruit)의 유무를 알아내는 일이며, 촉진으로 대동맥류나 다낭신(polycystic kidney)을 발견할 수도 있다. 고동맥도 역시 주의깊게 촉지하여 요골동맥과 비교하여 맥박이 감소되었거나 자연된 경우 반드시 하지혈압을 측정하여 상지혈압과 비교해야 한다.

##### 3. 검사실 조사(laboratory investigation)

고혈압 환자에서 어느정도의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란이 많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고혈압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기본검사를 시행한 후 이차성 고혈압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거나 약물치료에 혈압조절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추가 정밀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 기본검사

기본 소변검사와 혈청 크레아

티닌 및 요소질소 검사를 통해 신장의 상태를 평가하고, 혈청 포타씨움치는 부신피질출문과 과다로 인한 이차성 고혈압의 선별 검사와 이뇨제 치료전의 기선(baseline)을 위해 검사해야 한다. 혈당 수치도 중요한데 당뇨병의 경우 고혈압이 동반되면 동맥경화, 신혈관 질환 및 당뇨성 신부전이 빈발할 뿐 아니라 이차성 고혈압의 원인질환이 고혈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혈중 칼슘치와 요산의 검사도 필요하며 특히 요산은 신 고혈압이나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뇨제 치료시 더욱 증가된다. 혈중 지질검사는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검사시 빠져서는 안되며, 심전도 검사는 심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에서 실시해야 한다. 흉부 X-선 검사도 대동맥의 확장유무나 대동맥 교착으로 인한 이차적 늑골변화를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위에 기술한 검사항목들은 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들이다.

##### ▲ 정밀검사

병력이나 이학적 검사 그리고 기본검사실 소견상 이차성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보이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증 고혈압이 갑자기 발생하였거나 25세 전이나 50세 후에 심한 고혈압이 출현하면 신성 고혈압이나 갈색세포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검사가 요구된다. 두통, 심계항진, 불안감, 비정상적인 발한증, 고혈당 및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꼭 갈색세포종을 의심해야 되며 복부에서 잡음이 들리면 신성 고혈압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혈청 요소질소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 신부전을 먼저 의심해야 되고 이 경우 단백뇨나 혈뇨를 동반하는 수가 많다.

이차성 고혈압의 원인 질환은 신성 고혈압, 원발성 알도스케로니즘, 쿠싱 증후군, 갈색세포종 및 대동맥 교착증(coarctation of aorta)인데 이 질환들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들은 표를 통해 간단히 소개해 드린다(표 1).

이차성 고혈압 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서는 특히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하기 쉽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혈압측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차성 고혈압은 수술요법 등으로 거의 완치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나면 철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가족력 있을 시 훈현증 피로감 등이 정기적 혈압체크 대표적 증상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건강보조식품 제조품목허가 보사부 제12-5호

# 면역기능과 효소의 營養寶庫

맥주효모에 비타민E, 알로에와 우골분을 강화시킨 미생물식품

리포마® 포르테



[주] 한국바이오에너지  
Korea Bio-Energy Co., Ltd.

본사 : 서울 · 강남구 논현동 163-4 (3층)  
공장 :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213-3

■ 리포마 - 포르테는 면역기능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 – 특수다당체, 혼산, 비타민E 등이 풍부합니다.

■ 리포마 - 포르테는 인체의 모든 대사활동을 조절하는 효소의 재료영양소 – 비타민B군, 미네랄, 미량원소,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 리포마 - 포르테는 건강의 유지 및 회복에 있어 지름대 역할을 하는 면역기능과 효소의 완벽한 영양집결체입니다.

■ 서울 · 경기(인천) : 신사동540-1250 · 논현동515-4492 · 대치동557-3958 · 삼성동554-1664 · 서초(A)586-5607 · 서초(B)554-8327 · 강동(A)475-5522 · 강동(B)484-8800 · 강서651-6228 · 관악(A)887-5005 · 관악(B)882-3246 · 마포(A)715-2062 · 마포(B)324-4822 · 송파409-9182 · 양천654-4423 · 서대문372-3719 · 성동(A)467-3890 · 성동(B)295-1113 · 도봉(A)986-7760 · 도봉(B)992-6160 · 우이900-5730 · 종로737-2555 · 중랑494-7655 · 인천(A)423-1986 · 인천(B)425-8856 · 부천655-7923 · 수원(A)251-4121 · 수원(B)251-9442 · 군포52-2289 · 광명688-6023 · 하남31-7952 · 성남758-6891 · 안양45-2927 · 송탄665-7890 · 의정부847-9184 · 광주53-7912 · 안산80-8975 · 구리553-9181 ■ 강원 : 강릉646-1970 · 춘천51-7170 · 태백52-8444 · 원주43-0070 · 속초33-4820 · 고성681-4240 ■ 부산(경남) : 부산지사633-3462~3 · 충무2-8646 · 진해2-6272 · 광주73-1231 · 경주43-4944 · 구미(A)53-3711 · 구미(B)481-5002 · 선산481-5002 · 영천31-2987 · 상주34-0329 ■ 광주(전남) : 광주지사232-7393 · 목포43-3201 · 순천744-2218 · 장성92-4592 ■ 전북 : 전주지사86-6117 · 전주74-9171 · 전주(북부)74-1161 · 이리52-7487 · 군산446-1941 · 부안83-2283 ■ 대전 : 대전지사 255-0144 · 대덕(유성)626-9984 · 중구253-5529 · 서구525-7572 · 충주252-1718 ■ 충남 북 : 충남복지사(예산)2-6656 · 청주(A)56-3919 · 청주(B)4-1281 · 공주54-3202 · 천안553-4385 · 충주845-4095 · 대천935-0388 · 홍성641-1901 · 당진363-0415